

덴마크 왕립도서관

고전적 시가지를 거부하는 「블랙다이아몬드」

21세기 덴마크 사람의 프라이드를 간직한 도서관이 코펜하겐에 완성되었다. 1993년 왕립도서관 증·신축 현상모집에서 슈미트 해머 라센 K/S(Schmidt, Hammer Lassen K/S)사의 설계가 1등으로 선정됐다. 1995년부터 공사를 시작, 총공사비 5억크로네를 들여 완성하였다.



대안에서 본 아트리움의 해질녘 광경. 화려하면서 평온한 코펜하겐의 풍경이 두드러져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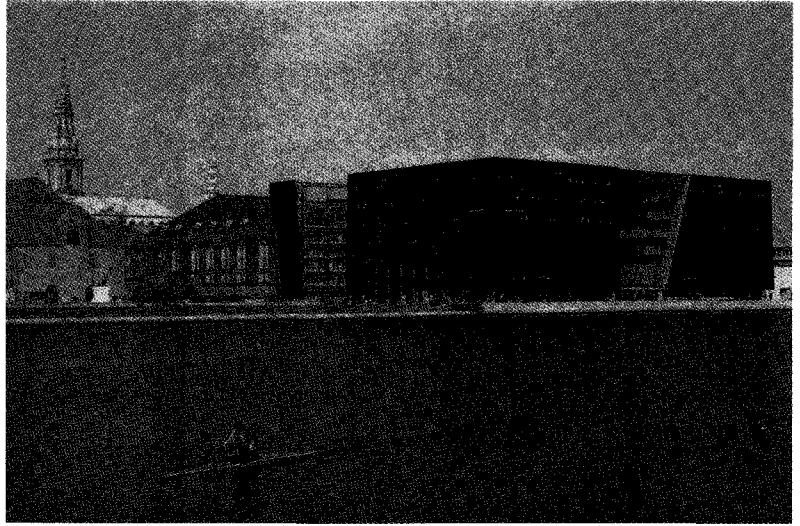
작은 나라 덴마크가 자랑할 만한 금세기 최대의 문화시설은 그당시 문화대신은 윗대 힌델씨가 명명한 「블랙다이아몬드」다.

도서관이 있는 스톡홀름 지구는 국회의사당 크리스티앙스보그(Christiansborg)성이라든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거래소 등이 있다. 운하를 사이에 두고 아마가(Amager)섬을 향해 건설된 거대한 건축은 시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잘 연마되어 트위스트된 직입방체의 포름은 역동적이면서 주위의 붉은 벽돌과 대조를 이루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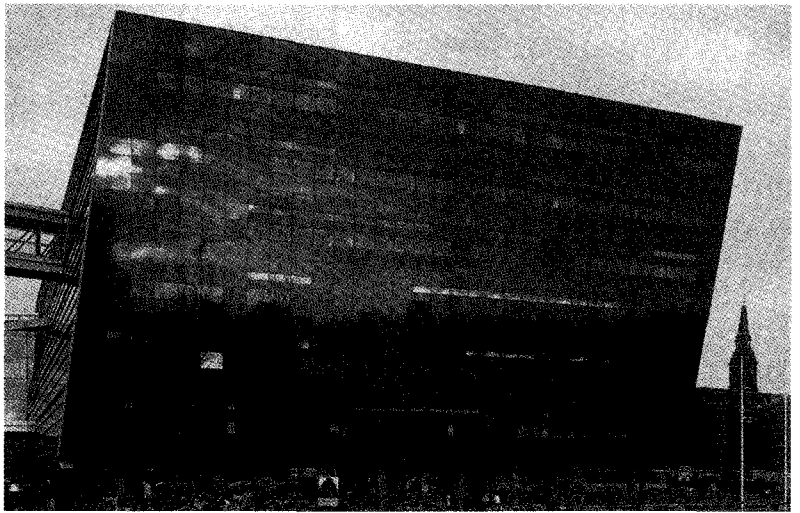
원래의 도서관은 1673년에 건설된 이래 건물의 정면은 고전적인 시가지를 거부하는 듯한 장엄함이 있다. 수면, 블랙다이아몬드,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접근은 일본의 신사를 의식한 것 같기도 하다.

메인 엔트런스가 있는 서쪽은 광장이 신설되어 자전거를 세워두는 곳이라든가 분수가 있어 시끄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리감을 창조하고 있다. 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카페, 정면에 서점이 있고 건물의 중심이 되는 아트리움으로 나간다.

7층까지 천정이 없는 아트리움은 유기적인 인테리어로 파상의 모양을 한 각층의 발코니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



아리데릭운하의 대안에서 보는 전경. 구도서관은 땅에 붙어 있고 신관은 수면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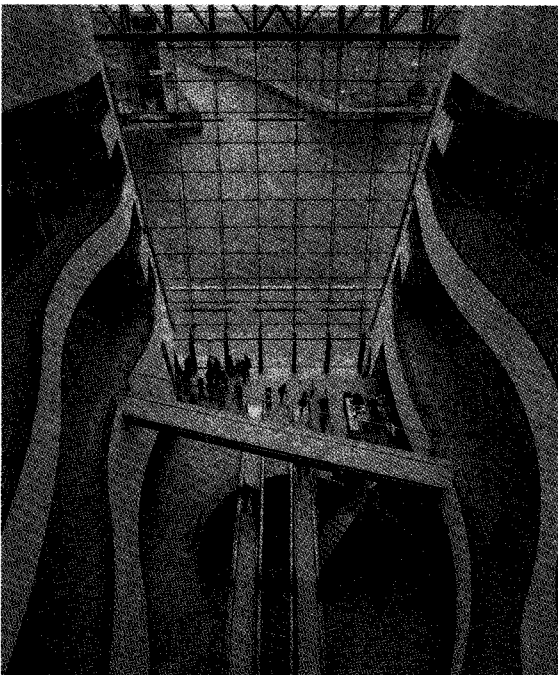
블랙다이아몬드의 저녁 광경. 소렌 킬게고드 광장에서 본 다이아몬드의 정면. 일기에 따라 여러가지 반사상을 얻을 수 있다. 함께 2,500m²의 화강암, 남아프리카의 블랙 짐바브웨라 불리는 흑석재를 사용 북 이태리에서 연마했다.

구 도서관에서 브리지를 통하여 수면으로 나오는 남북의 중심축에 이 아트리움이 있고 건물을 동서로 둘로 분할하는 구조로 되어있지만 각층은 기능적으로 하나의 정리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백야가 있는 반면 겨울에는 짧은 일조가 있다. 이런 채광 대비는 북구라파 건축가들이 우선적으로 배려할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라 할만하다.



경사진 모양의 움직이는 보도를 올라가면 신구건물을 연결하는 폭 18m의 브리지로 나온다. 가족으로 된 평탄한 소파가 놓여 있고 유리 밖으로 옛 시가지가 보인다. 또 대출 카운터도 이곳에 있다. 천정은 바 킬게비작의 210m²의 그림



제일 윗층의 브리지에서 아트리움을 내려다 본 광경. 파상의 발코니는 사람이 크게 손을 벌려 맞아들이는 것 같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유기적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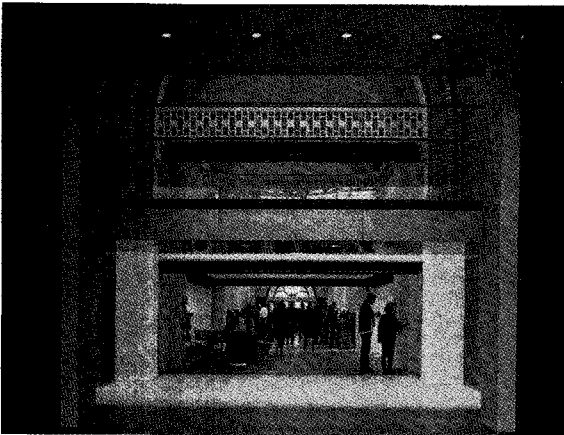


트라베레터(경사진모양의 움직이는 보도) 올라가는 입구에서 아트리움을 올려다 본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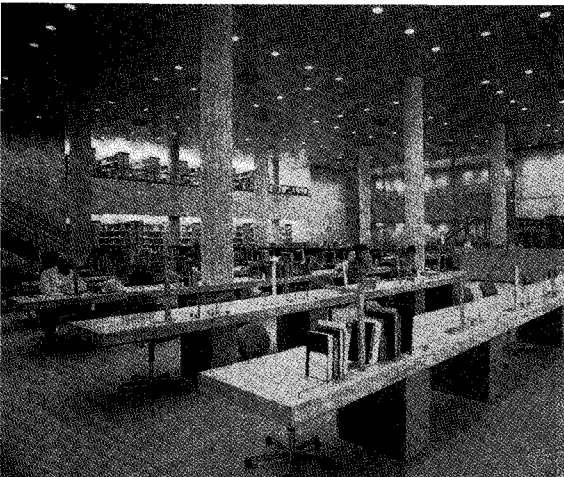
열람실의 창은 앞면이 유리로 천정에서 자연광이 안쪽까지 들어옴과 동시에 남쪽의 수면에서 반사광도 약하게 들어오게 한 설계로 되어 있어 독서를 하면서 사계절마다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소재로는 남아프리카산의 짐바브웨 화강암, 스페인산의 석회석, 철, 유리, 나무, 콘크리트와 소품종을 선택하여 분위기도 섬세함을 자아내고 있다.

또 관내에는 불필요한 조각, 미술품 같은 것은 없다. 대출코너가 있는 브리지 위에 210m²나 되는 근대 회화의 제1인자 킬게비의 그림이 있을 뿐이다.




대출코너에서 구관을 본다.



동쪽의 햇슈라 부르는 2층 건물은 언어교육, 인포메이션 등 네개의 시설이 있고, 블랙다이아몬드와는 대조적으로 백색의 사암으로 된 건물정면으로 되어 있다. 계단을 올라간 옥상은 산책코스가 되어 있고 여름에는 레스토랑, 카페가 개점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여행자에게 매력적인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설계를 한 4인 그룹의 한 사람인 가장 젊은 킴 홀스트 이엔센씨로부터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프로젝트로 당초의 아이디어를 타협없이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의 성과였다”라고 하는 만족스러운 코멘트를 받았다. 1990년의 덴마크의 호황과 재정의 개선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주변환경과 격리한 것은 블랙다이아몬드가 21세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자리잡아갈지 흥미깊은 일이다. <外誌에서> 



유리 밖으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가족으로 된 소파

아트리움을 끼고 양측에 있는 쾌적한 열람실. 실내의 백목 책상은 열람자가 입구쪽을 보고 앉도록 배열되어 있다. 정연한 책 선반은 극장의 배경막과 같은 느낌이다. 안쪽에는 개별 방으로 된 VIP룸도 완비